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광주 기자간담회

"노조 직접 만나 불신 벽 헐겠다"

금호타이어 노사공동위 구성 제안

임금수준 경쟁사와 동등대우 약속

박삼구〈오른쪽 두번째〉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등 그룹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30일 "앞으로 노조를 직접 만나 불신의 벽을 헐어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광주 유·스퀘어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호타이어는 지난 25년 동안 매년 분쟁을 해왔고, 노조위원장도 20명이나 바뀌었다"면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오늘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을 직접 만난 것도 노사문화를 바꿔보려는 취지에서였다"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호타이어의 임금 수준을 경쟁사보다 절대로 1원이라도 적게 주지 않겠다"며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워크아웃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워크아웃을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 임금수준을 결정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조사는 제3자에게 용역을 맡기든, 시민단체가 하든 노조의 뜻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워크아웃 졸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반납분을 즉시 환원하며,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경쟁사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며 "직원들과 광주시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광주공장의 폐쇄설과 관련해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워크아웃 졸업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내년 졸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은 2014년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충당금을 많이 쌓았고, 2200억원 유상증자도 그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서는 감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호고속은 2년 내에 꼭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의 경우 금호산업이 150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큰 돈 안 들이고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06.38 (-22.16)	505.64 (+0.32)	2.77% (-0.02)	1,134.00원 (+0.60)

현대차 밤샘근무 없앤다

노사 주간연속 2교대제 내년 3월 시행 합의

기아차·부품업체 등 근무형태 변화 불가피

현대자동차 노사가 45년 만에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월급제 도입에 합의해 자동차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 교섭대표가 30일 오전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3월 4일부터 현행 주야 2교대(10시간+10시간)에서 주간 2교대(8시간+9시간)로 근무형태를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1조 오전 8시~오후 6시50분, 2조 오후 9시~이튿날 오전 8시(주야 2시간 잔업 포함) 일했으나 1조 8시간(오전 6시40분~오후 3시20분), 2조 9시간(오후 3시20분~이튿날 오전 1시10분, 잔업 1시간 포함) 근무로 바뀌게 된다.

현대차 측은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이란 두 전제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근무 시간이 3시간 줄더라도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높이고 조회, 안전교육 등 기존 비가동시간 일부를 작업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공장별 인력 운영을 바꾸면 기존의 생산능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차에서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 근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다른 업체에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완성차 공장은 물론이고 상당수 부품 업체가 완성차 라인에 맞춰 심야 근무를 포함한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현대차와 한지붕 아래 형제인 기아차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한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아직 협상 중이나 그동안 선례를 보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비슷하게 가곤 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한국지엠의 노사간 협의도 영향을 받게 됐다.

앞서 한국지엠은 주간 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노사 공동으로 구성해 내년 1분기 내에 이 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 2분기에 본격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가 잠정합의안 부결로 임단협 재협상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26차 교섭으로 협상이 재개되면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포함한 임단협을 다시 논의하게 됐다.

/연합뉴스

기아차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

기아차㈜는 9월 5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기아자동차 채용 홈페이지(recruit.kia.co.kr)에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로 해외여행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011년 1월 이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있어야 한다.

전형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HKAT), 실무면접(1차 면접), 임원면접·영어면접(2차 면접), 신체검사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지원 직무에 따라 별도 맞춤 전형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보다 정확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아 시네마 데이', '대학교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채용 홈페이지(recruit.kia.c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보 내년 7월까지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회사에 담보제공(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내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브릿지론 보증 시행에 따라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이들 기관이 출자, 출연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로부터 직접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채무로 한다.

보증지원은 최대 300억원내에서 회사채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별로 차등해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보증신청시 공사계약서, 건설공사대금 지급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채권양도승낙조건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채권양도승낙을 받은 경우 보증취급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화점 가을 신상품 3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MCM' 핸드백 매장에서 직원이 여성고객에게 올 가을 신상품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제조업체 "9월 경기도 암울"

업황전망 BSI 70…전달보다 4P 하락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현재 경기상황은 물론 9월 경기전망도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458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8월 업황BSI와 9월 업황전망BSI는 각각 65와 70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 4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과거 평균보다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광주·전남의 경우 BSI가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됐다는 의미다. 8월 매출BSI, 생산BSI, 채산성BSI는 전달보다 각각 5포인트, 6포인트, 4포인트 내려갔다.

8월 매출전망BSI와 생산전망BSI, 채산성전망BSI는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7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8월 업황BSI는 68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하고, 9월 업황전망BSI는 72로 4포인트 하락했다. 8월 매출BSI는 81로 전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 인력사정BSI는 89로 1포인트 상승했다.

9월 매출전망BSI는 82로 전달보다 1포인트 내려가고, 인력사정전망BSI는 88로 1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32.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7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 전달보다 2.9% 줄어

경기 침체로 백화점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30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7월 백화점의 카드 승인액은 1조141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6% 감소했다. 전월보다도 2.9%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백화점은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카드 사용액 감소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휴일 영업 규제로 주춤했던 대형할인점의 승인 실적은 증가세로 반전됐다. 최근 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의 7월 카드 승인액은 2조6790억원으로 전월보다는 11.3%, 전년 동월보다는 1.7% 늘었다.

공과금 서비스 승인액은 2조3470억원으로 6월보다 92.3%나 급증했다. 지난 2분기 법인세 등 납부 기한이 7월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67% 증가했다. 지난 7월 카드 승인액은 총 44조28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7% 늘었다./연합뉴스